

신선농산물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조사

- 홍콩 단감 -

2020. 01



[목 차]

I. 국내 시장동향	191
1. 생산현황	191
2. 유통현황	200
3. 소비현황	203
4. 수출현황	205
II. 홍콩 시장동향	209
1. 생산현황	209
2. 유통현황	209
3. 소비현황	213
4. 수입현황	214
III. 시장현황비교분석	219
1. 시장현황비교	219
2. 수출국 시장분석	220
IV. 시장확대방안	222
1. 품목유망성	222
2. 시장확대방안	223

I. 국내 시장동향

1. 생산현황

1) 재배품종

□ 단감은 생리적 특성에 따라 △완전 단감과 △불완전 단감으로 분류됨

- 완전 단감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떫은맛이 사라지며 과육색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부유, 차랑, 상서조생, 조완, 로망, 연수, 감풍 등이 있음
- 불완전 단감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과육 내 타닌 성분이 남아있어 떫은맛이 나며, 과육의 색이 갈색으로 변화하거나 반점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임
 - 감백목, 서촌조생, 선사환, 조홍시 등이 대표적인 불완전 단감 품종임

□ 국내에서 재배되는 단감 품종은 대부분 부유로, 편중 재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국산 품종이 개발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부유는 국내 단감 재배면적의 83% 이상을 차지하여 재배가 편중되는 현상을 보임¹⁾
 - 부유는 차랑과 함께 일본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단감 품종으로, 196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함
 - 국내에 단감 품종이 도입되기 전에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감 또는 일반 가정 마당에서 볼 수 있는 떫은 감이 대부분으로, 생과 대신 주로 홍시나 꽃감의 형태로 섭취하였음
 - 부유 도입 후 단감 소비가 증가하며 재배가 확대되었고, 이후 편중 재배가 이어져 오고 있음
 - 묘목을 새로 심을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해야 착과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접갱신기술²⁾을 적용하여 부유 재배편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단일 품종의 편중 재배로 발생하는 공급 과잉과 가격 불안정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 단감 품종이 육성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산 품종의 보급률 확대와 수입 품종 대체를 위해 2019년 기준 6개의 국내 단감 품종을 보급하고 있음
 - 수확기를 기준으로 조완(9월 하순), 원미·원추(10월 상순), 로망·연수(10월 중순), 감풍(10월 하순) 등이 보급되고 있음

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9.02.27.)

2) 품종 고접갱신은 기존의 단감나무 높은 부위에 다른 품종을 접목시켜 갱신하는 방법을 일컫음

〈표 1-1-1〉 단감 주요 품종별 특징

품종	사진	주요 특징
부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 크기는 200~220g이며, 당도는 15~16° Bx 수준임 ·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에 수확함 · 전체 수확량의 15~20% 정도가 저온저장 후 출하됨
차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 크기가 230g 정도로 대과종에 속하며, 당도는 16° Bx임 · 숙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임
서촌조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 크기는 180~200g이며, 당도는 15° Bx 내외임 · 9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조생종으로, 수분수로 활용하거나 추석용으로 수확함
조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중은 220g 정도이며 당도는 16.4° Bx 수준으로 식미가 우수함 · 조생종, 특히 서촌조생의 대체용으로 육종되어 9월 중·하순경에 수확함
로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완전단감 품종으로, 과중 185g 내외의 중과종이며 당도 18.6° Bx의 고당도 품종임 · 숙기는 10월 중순으로, 상온 저장력은 20일 정도로 중간 정도임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5g 내외의 중과종으로 평균당도 17.0° Bx 의 고당도 품종임 · 과즙이 풍부하고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껍질째 섭취 가능함 · 만개기는 부유 품종보다 2일 정도 빠르며, 숙기는 10월 중·하순임
감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중은 417g이며 당도는 약 15° Bx임 · 과실 표면의 열과(열매터짐)나 꼭지들림 등 생리장해 발생이 적은 편임 · 부유의 대체품종으로 개발되었으며, 부유보다 10일 정도 이른 10월 하순께 수확함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자재>품종정보(<http://nongsaro.go.kr/>)

2) 생산동향

가. 생산량 추이

□ 2018년 국내 단감 생산량은 10만 4,362톤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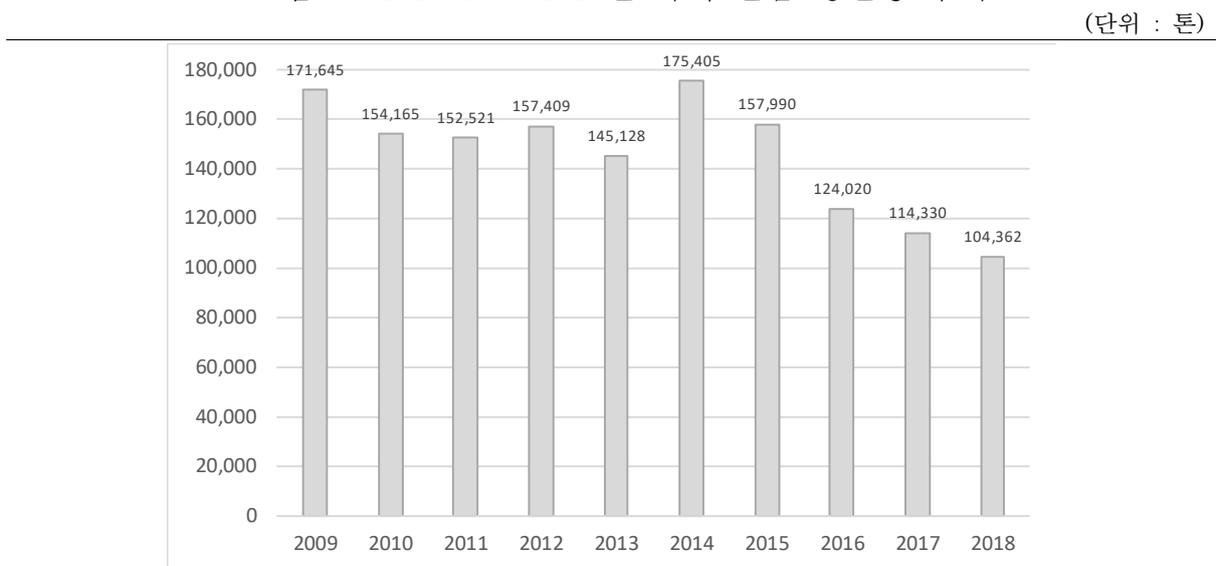
- 최근 10년간 국내 단감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단감 생산량은 11월 상순에 발생한 이른 한파로 동해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전년대비 20.5%가량 감소함
 - 2016년에는 수확기 강우 피해로 꼭지들림³⁾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생육기 가뭄으로 생산량 감소세가 이어짐
- 2018년에는 생육기 가뭄 및 폭염과 더불어 단감 주 재배지인 경남과 전남지역에서 일소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함
 - 이와 더불어 동년 4월 발생한 저온피해로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단감 과수의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착과수가 줄어든 것 또한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침

〈표 I -1-2〉 2009~2018년 국내 단감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1,645	154,165	152,521	157,409	145,128	175,405	157,990	124,020	114,330	104,362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그림 I -1-1〉 2009~2018년 국내 단감 생산량 추이



- 3) 과실이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꼭지의 꽃받침과 과실 사이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여 빗물 유입 또는 병균 침입으로 과실이 병들게 됨. 이러한 경우 과실이 물러지거나 부패하여 상품성과 저장성을 상실함
- 4)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과실 표면의 색이 회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의미함

□ 2018년 국내 단감의 주 재배지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로, 전국 생산량의 89.3%를 차지함

- 경상남도의 단감 생산량은 6만 3,782톤, 전라남도의 생산량은 2만 9,419톤으로 집계됨
 - 경남은 전국 단감 생산량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은 28.2%를 차지함
 - 두 지역 모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7.5%와 12.4%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가뭄 및 폭염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일소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도 경상북도 4,948톤(4.7%), 울산광역시 2,793톤(2.7%) 등 단감이 생산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음

〈표 1-1-3〉 2018년 지역별 단감 생산량

(단위 : 톤, 톤, %, %)

순위	지역	2017년 생산량	2018년 생산량	비중(2018)	YoY
	전국	114,330	104,362	100.0	△8.7
1	경상남도	68,933	63,782	61.1	△7.5
2	전라남도	33,574	29,419	28.2	△12.4
3	경상북도	5,360	4,948	4.7	△7.7
4	울산광역시	2,726	2,793	2.7	2.5
5	광주광역시	1,456	1,088	1.0	△25.3
6	전라북도	753	1,080	1.0	43.4
7	제주도	753	660	0.6	△12.4
8	부산광역시	247	245	0.2	△0.8
9	충청남도	372	244	0.2	△34.4
10	대구광역시	39	42	0.04	7.7
11	대전광역시	28	30	0.03	7.1
12	경기도	36	27	0.03	△25.0
13	강원도	30	4	0.004	△86.7
14	서울특별시	-	-	-	-
15	인천광역시	-	-	-	-
16	세종특별자치시	1	-	-	-
17	충청북도	22	-	-	-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2018년 국내 단감 재배면적은 9,108ha로, 전년대비 5.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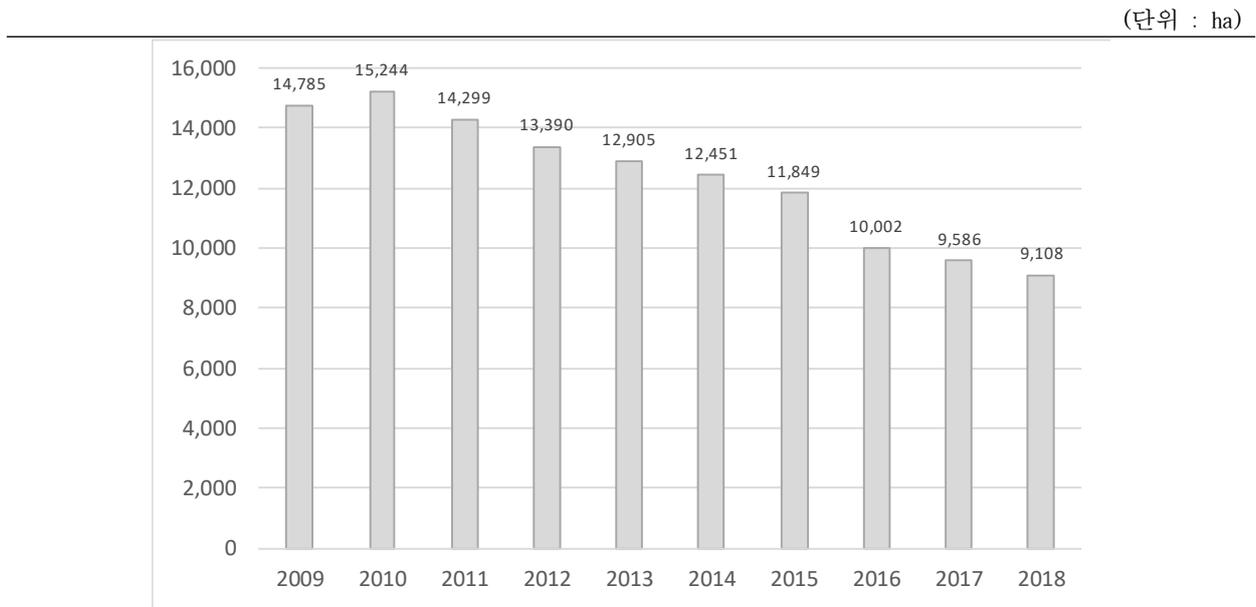
- 국내 단감 재배면적은 농가의 노동력 부족 및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음
-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폐원 등으로 인해 국내 단감 재배면적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표 I -1-4〉 2009~2018년 국내 단감 재배면적 추이

										(단위 : ha)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4,785	15,244	14,299	13,390	12,905	12,451	11,849	10,002	9,586	9,108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그림 I -1-2〉 2009~2018년 국내 단감 재배면적 추이



□ 2018년 단감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로, 전국 단감 재배면적의 85.8%를 차지함

- 경상남도의 단감 재배면적은 5,150ha로 전국의 56.5%를 차지함
- 이는 전년대비 4.1% 감소한 수준으로, 2018년도 해당 지역의 단수는 1,239kg으로 집계됨
- 단감은 연평균 12℃ 이상에서 재배되는 난온대성 과실로,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 초상(첫 서리)이 늦어 입지적으로 단감 재배에 유리함

- 전라남도의 단감 재배면적은 전국의 29.3%에 해당하는 2,673kg로 해당 지역의 재배면적 역시 전년대비 8.7% 감소함
 - 단수는 경상남도보다 조금 낮아 10a당 1,100kg의 단감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지역 역시 단감 재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었지만,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산간지역이 적고 참다래 등 단감을 대체하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경남보다는 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5〉 2018년 지역별 단감 재배면적

(단위 : ha, ha, %, kg, %)

순위	지역	2017년 재배면적	2018년 재배면적	비중('18)	단수('18)	YoY
	전국	9,586	9,108	100.0	1,146	△5.0
1	경상남도	5,371	5,150	56.5	1,239	△4.1
2	전라남도	2,928	2,673	29.3	1,100	△8.7
3	경상북도	554	556	6.1	890	0.4
4	울산광역시	242	242	2.7	1,154	0.0
5	제주도	95	144	1.6	458	51.6
6	광주광역시	176	141	1.5	769	△19.9
7	전라북도	114	115	1.3	938	0.9
8	충청남도	46	43	0.5	568	△6.5
9	부산광역시	30	28	0.3	881	△6.7
10	경기도	6	6	0.06	456	0.0
11	대전광역시	4	5	0.05	654	25.0
12	대구광역시	3	4	0.04	1,167	33.3
13	강원도	6	1	0.01	357	△83.3
14	서울특별시	-	-	-	-	-
15	인천광역시	-	-	-	-	-
16	세종특별자치시	8	-	-	-	-
17	충청북도	3	-	-	-	-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농림어업(<http://kostat.go.kr/>)>

다. 작기 및 출하기

□ 단감은 3월에서 11월까지 생장 및 성숙하는데, 휴면기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이 매년 반복됨

- 단감은 2월 하순 경 휴면기가 완료되며 생육 및 성숙기를 거친 후 11월 하순부터 낙엽과 동시에 휴면기가 시작됨
 - 3월 하순부터 발아가 시작되면 잎이 전개되고, 5월 중·하순부터는 개화가 시작됨
 - 개화와 수정이 완료되면 과실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며, 9월 이후부터 성숙 때까지는 착색과 함께 가장 많이 비대해짐
 - 개화 후 성숙기까지 과실 크기는 약 60배 정도 비대해짐

- 조생종의 경우 생육을 위해서는 190~220일 이상이 필요하며, 부유 등 만생종은 230~250일이 필요함
- 묘목을 심은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과실이 달리기 시작하며, 40년 경과 후에는 과수가 노쇠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단감의 품질이 낮아짐

〈표 1-1-6〉 단감 재배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육기	휴면기	-	발아기 전엽기	개 화 기	생리적 낙과기	화아 분화기	착색기 성숙기	휴면기				
재배 관리	정지, 전정		-	적뢰	적 과	하계 전정	-				정지, 전정	
	관수, 배수, 제초											
시비	밑거름 주기		-			여름 거름주기	-	가을 거름 주기	-			밑거름 주기

* 출처 : 창원단감테마공원(culture.changwon.go.kr)

□ 단감은 보통 9월 하순에서 11월 중·하순 사이에 수확함

- 품종별로 수확시기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완료함
 - 단감은 수확시기에 크기가 급격하게 비대해지거나 착색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적절하게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색, 당도, 크기, 과육경도 등에 따라 수확 여부를 결정함
- 9월 중·하순에 조생종 단감 수확을 시작으로 11월 중·하순 만생종 수확까지 이어짐
 - 국내 단감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유는 만생종으로, 수확기가 늦어지면 서리나 동해 피해가 자주 발생함

〈표 1-1-7〉 품종별 단감 수확기

구분	9월			10월			11월			주요 품종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조생종										서촌조생
중생종										상서조생
만생종										부유, 차랑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작목기술정보(http://nongsaro.go.kr/)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신선 단감은 크기, 선택, 속도, 결점과 등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됨

- 특 등급 단감은 날개의 크기가 고르며, 속도가 균일하고 결점이 없어야 함
 - 뒤이어 크기 차이와 착색비율, 속도, 결점 정도에 따라 상, 보통 등급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와 같이 규정됨

〈표 1-1-8〉 국내 단감 표준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하기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하기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착색비율이 80% 이상인 것	착색비율이 60% 이상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속도	속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속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부패·변질과를 제외하고 5% 이하인 것
⑤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 단감의 크기는 3L에서 3S까지 7가지 등급으로 구분됨
 - 가장 작은 3S 크기와 가장 큰 3L 크기는 중량이 약 2배 차이가 남

〈표 1-1-9〉 국내 유통되는 단감 크기 구분

(단위 : g/개)

3S	2S	S	M	L	2L	3L
150 미만	150 이상~ 167 미만	167 이상~ 188 미만	188 이상~ 214 미만	214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 단감 재배 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준수해야 하며,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음

-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됨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기준 이하의 농약만 사용되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단감 재배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제품은 2018년 12월 기준 약 819개가 확인됨
 - 재배 시 사용이 제한된 농약성분으로는 프로사이미돈(21.4), 이피엔(7.1), 피페로닐부톡사이드(7.1) 등이 있음
 - 단감 재배 시 사용 가능한 등록농약 정보는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nongsaro.go.kr)
 -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pis.rd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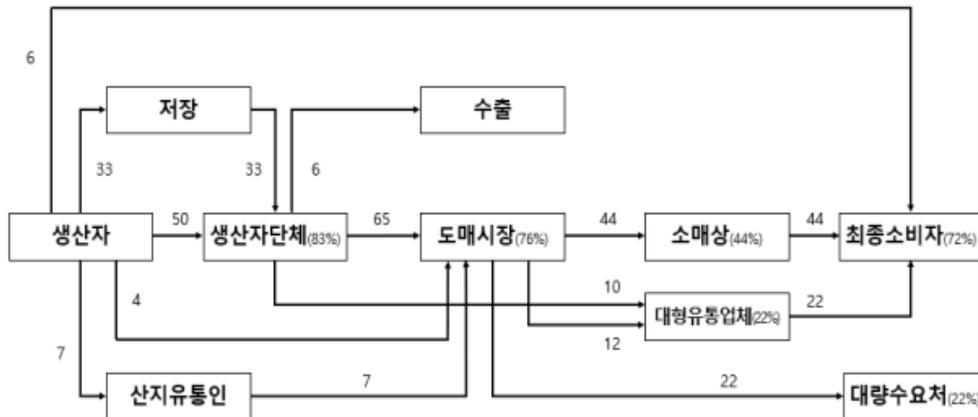
2. 유통현황

1) 유통구조

□ 국내에서 생산된 단감은 크게 《생산자단체 →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의 경로로 유통됨

- 단감 출하량 중 83%는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로 유통됨
 - 산지유통인의 활동은 미미한 편이며,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출하된 단감 물량의 33%는 저장과정을 거친 후 생산자단체로 유통됨
 - 생산자단체로 출하된 단감은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상이나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도달됨

〈그림 1-2-1〉 국내 단감 유통경로(2016년)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2016)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연중공급을 위해 단감은 저장과정을 거치며, 상품성 및 시장가격에 따라 저장 비율과 저장량이 조정됨
 - 10월 초에서 11월 말 사이에 수확한 단감을 저장하여 보통 다음해 4월 초까지 출하함
 - 저장 방법에 따라 최소 1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함

저장 방법	상온 저장	저온 저장	포장 후 저온 저장
저장 기간	1주	4주	3~5개월

- 과일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는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물량을 출하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단감을 저장출하하여 가격하락에 대응함

2) 도·소매가격

□ 2018년 단감의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1kg 당 3,155원으로 전년대비 17.5% 상승함

- 동년 국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8.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감 출하량 또한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단감의 평균 도매가격은 1년 중 2~3월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출하량 감소 및 구정 제수용 단감의 물량확보를 이유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감은 일반적으로 설 대목 출하를 위해 10월 하순 또는 11월 상순부터 저장이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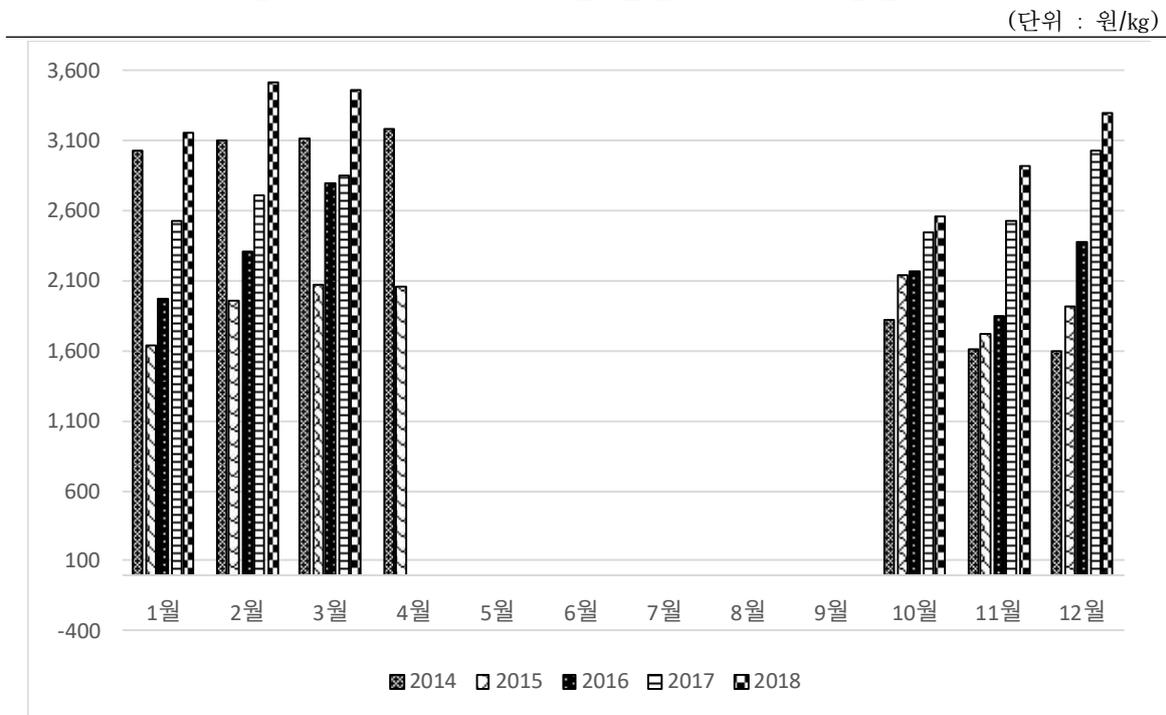
〈표 1-2-1〉 2014~2018년 단감 도매가격 월별 추이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3,026	3,105	3,113	3,187	-	-	-	-	-	1,821	1,615	1,603	2,475
2015	1,632	1,963	2,069	2,052	-	-	-	-	-	2,141	1,726	1,911	1,905
2016	1,967	2,302	2,794	-	-	-	-	-	-	2,170	1,843	2,382	2,252
2017	2,527	2,712	2,846	-	-	-	-	-	-	2,446	2,530	3,025	2,684
2018	3,156	3,520	3,459	-	-	-	-	-	-	2,551	2,914	3,294	3,155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1-2-2〉 2014~2018년 단감 도매가격 월별 추이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 2018년 단감 평균 소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개당 1,092원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함

- 도매가와 마찬가지로 2~3월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함
 - 2월의 단감 소매가격이 개당 1,217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0.1% 상승함
 - 2017년 경상남도 지역에서 생육기 가뭄으로 중량이 미달된 비상품과가 대량 발생하여 많은 농가에서 단감 수확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총 단감 생산량이 감소하며 2018년 초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생산량 감소로 대과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저장량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저장 감 출하량도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표 1-2-2〉 2014~2018년 단감 소매가격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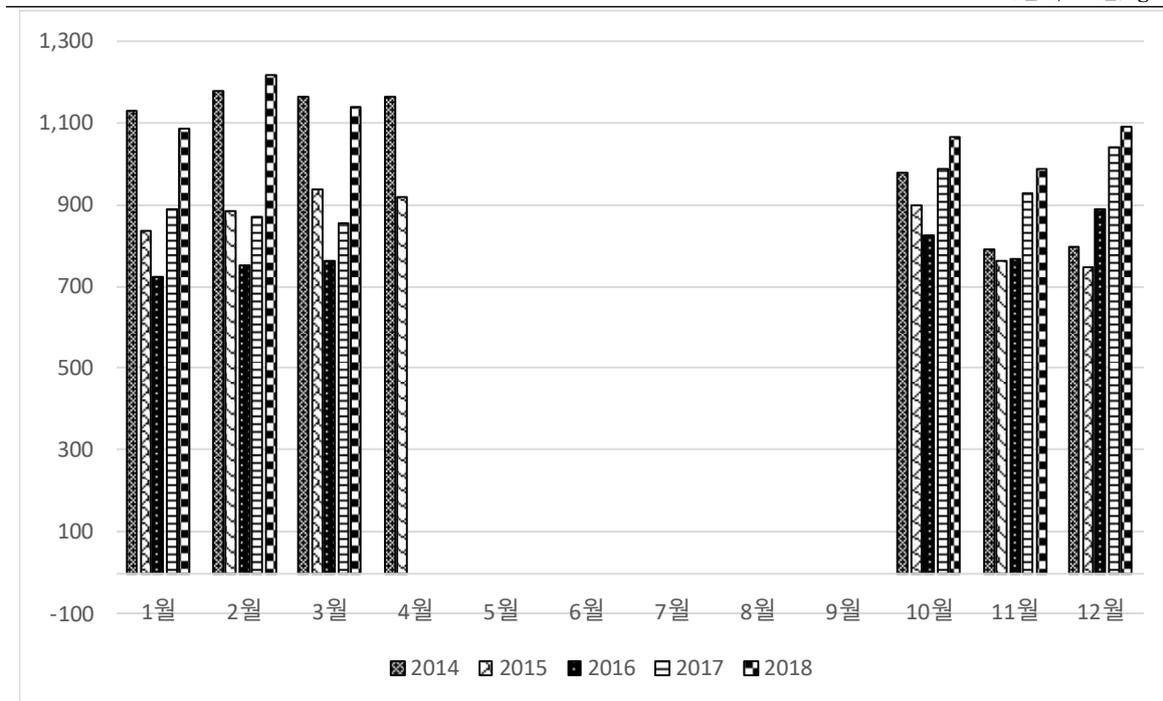
(단위 : 원/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1,129	1,178	1,163	1,162	-	-	-	-	-	979	789	796	1,018
2015	835	886	936	917	-	-	-	-	-	900	762	749	846
2016	724	751	763	-	-	-	-	-	-	826	765	890	784
2017	887	868	854	-	-	-	-	-	-	989	928	1,039	922
2018	1,083	1,217	1,137	-	-	-	-	-	-	1,067	989	1,091	1,092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1-2-3〉 2014~2018년 단감 소매가격 월별 추이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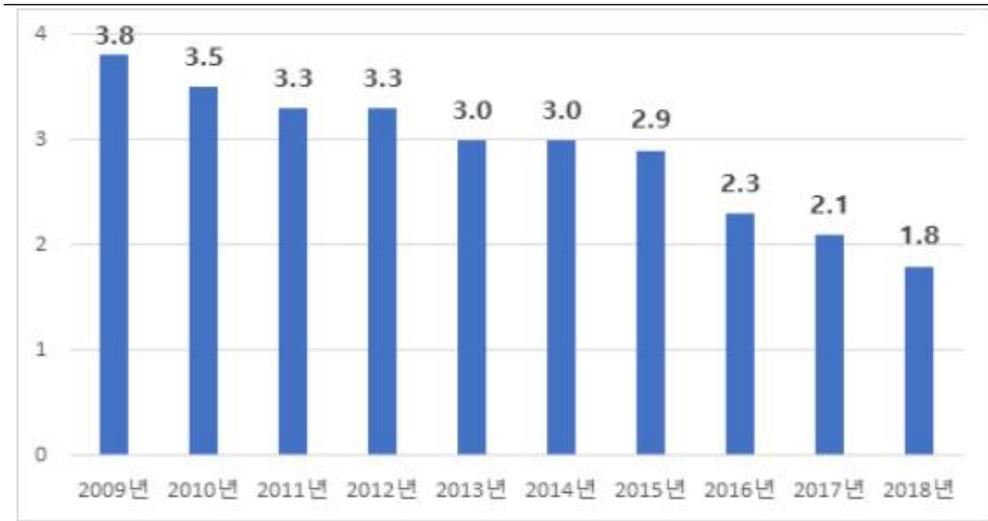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3. 소비현황

□ 국내 단감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비량 역시 줄어드는 추세임

- 2018년 1인당 연간 단감 소비량은 전년대비 14.3% 감소한 1.8kg으로 추정됨
- 2017년 기준 단감의 국내 총 소비량은 10만 7,000톤, 1인당 소비량은 2.1kg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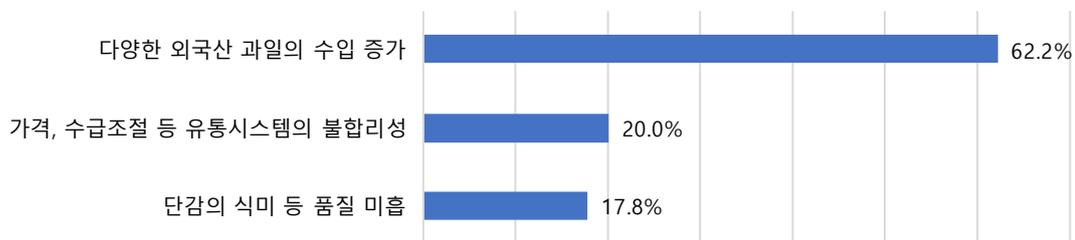
〈그림 1-3-1〉 2009~2018년 1인당 연간 단감 소비량 추이
(단위 : 개)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9.05.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서 조사한 소비자 설문결과⁵⁾에 따르면, 단감 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원인으로 ‘다양한 외국산 과일의 수입증가’가 꼽힘
- 뒤이어 ‘가격, 수급조절 등 유통시스템의 불합리성’, ‘단감의 식미 등 품질 미흡’ 등으로 인해 단감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응답함

〈그림 1-3-2〉 단감 소비감소 이유



* 출처 : 경상남도청 온라인 패널조사(www.gyeongnam.go.kr), 「단감 소비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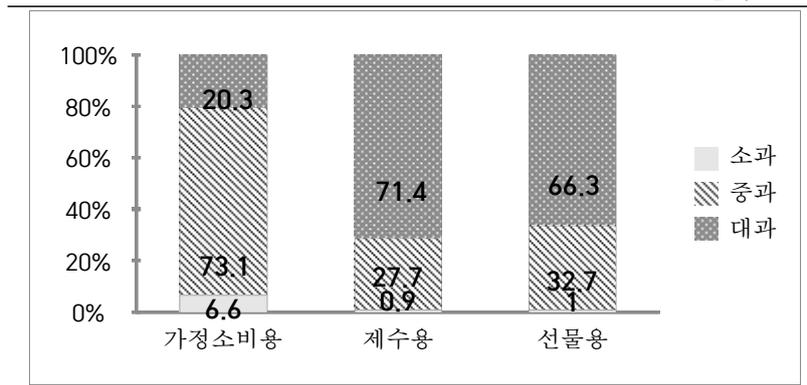
5) 경상남도청 온라인 패널조사, 「단감 소비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식 조사」(2018.05.01.~2018.05.31.)

□ 단감은 일반적으로 중·대과 사이즈가 선호되나, 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제수용 및 선물용 소비의 경우, L~3L 사이즈(214g~300g 이상)의 대과를 선호함
 - 제수용 소비 시 대과 선호 비중은 71.4%에 달하며, 선물용 소비 시에는 전체의 66.3%가 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정소비용의 경우 M사이즈(188g~214g)의 중과 선호도가 높는데, 전체 응답자의 73.1%가 생식용 소비로 중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3> 단감 용도별 선호 크기

(단위 : %)



* 주 : 단감 크기는 소과(3S, 2S, S), 중과(M), 대과(L, 2L, 3L)로 구분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조사(www.krei.re.kr)(2016.12.22.-2016.12.23.)

□ 국내에서 단감은 주로 생식용으로 섭취하며, 가공형태는 술, 식초, 음료 등으로 한정적인 편임

- 2016년 기준 단감 생산량 12만 4,020톤 중 가공용 물량은 약 371톤으로, 약 0.3%에 불과함
 - 가공용 소비는 식초, 음료 및 기타, 주스 등으로 제조 사용되는데, 동년 단감 식초 제조를 위한 단감 소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3-1> 2006~2016년 단감 가공형태

(단위 : 톤)

유형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0	0	702	300	108	69	72	142	292	313	371
식초	0	0	700	250	78	55	67	139	119	148	255
음료 및 기타	0	0	2	0	0	2	3	1	172	164	100
주스	0	0	0	0	0	0	0	0	0	0	16
술	0	0	0	50	30	12	1	1	1	1	0
통조림	0	0	0	0	0	0	0	0	0	0	0
네티 ⁶⁾	0	0	0	0	0	0	0	0	0	0	0
잼	0	0	0	0	0	0	1	1	0	0	0

* 출처 : 2015 과실류 가공현황.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6) 과실을 간 후 체로 거른 죽 상태의 액즙을 원료로 가공한 것

4. 수출현황

1) 단감 수출현황

□ 2018년 한국산 단감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9.2% 감소한 5,660톤으로 집계됨

- 수출물량 감소는 당해 연도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국내 단감 생산량 11만 4,330톤 중 수출물량은 7,002톤으로 수출량은 생산량의 6.1%를 차지함
 - 2018년 수출량은 5,660톤으로 전체 생산량 10만 4,362톤 중 약 5.4%의 비중을 차지해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7%가량 감소함
- 2018년도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로, 전체 수출물량의 약 45.6%에 달하는 2,581톤이 수출됨
 - 말레이시아는 2012년 이후 매 해 전체 수출물량의 최소 37%에서 최대 49%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임
- 이 외에도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으로 한국산 단감이 수출되고 있음
 - 동년 싱가포르로의 수출물량은 833톤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함
 - 또한 對필리핀, 홍콩으로의 수출은 각각 706톤(12.5%), 687톤(12.1%)으로 집계됨

〈표 I-4-1〉 2009~2018년 한국 단감 수출현황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N/A	N/A	N/A	8,744	7,361	8,428	8,612	6,818	7,002	5,660
1 말레이시아	N/A	N/A	N/A	4,090	3,376	3,328	3,362	2,542	3,414	2,581
2 싱가포르	N/A	N/A	N/A	1,294	1,221	1,177	1,483	753	892	833
3 필리핀	N/A	N/A	N/A	657	586	993	802	933	729	706
4 홍콩	N/A	N/A	N/A	910	606	1,051	1,189	857	838	687
5 캐나다	N/A	N/A	N/A	1,062	730	1,002	797	535	421	455
6 태국	N/A	N/A	N/A	311	247	364	537	763	412	208

*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2018년 한국산 단감의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1.3달러(한화 약 1,547원)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로의 수출단가는 평균 이하인 1.1달러(한화 약 1,309원)/kg로 집계됨

- 싱가포르로의 수출단가는 1.2달러(한화 약 1,428원)/kg로 나타남
- 필리핀, 홍콩, 캐나다, 태국으로의 수출단가는 평균에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남
 - 필리핀, 캐나다, 태국으로의 수출단가는 kg당 각각 1.6달러(한화 약 1,904원)로 집계되었으며, 홍콩으로의 수출단가는 1.5달러(한화 약 1,785원)로 확인됨

〈표 1-4-2〉 2009~2018년 한국 단감 수출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N/A	N/A	N/A	1.5	1.4	1.5	1.3	1.3	1.1	1.3
1 말레이시아	N/A	N/A	N/A	1.3	1.3	1.4	1.2	1.1	1.0	1.1
2 싱가포르	N/A	N/A	N/A	1.4	1.3	1.4	1.2	1.1	1.1	1.2
3 필리핀	N/A	N/A	N/A	1.8	1.7	1.7	1.4	1.4	1.3	1.6
4 홍콩	N/A	N/A	N/A	1.5	1.5	1.6	1.4	1.3	1.2	1.5
5 캐나다	N/A	N/A	N/A	1.8	1.7	1.6	1.5	1.4	1.4	1.6
6 태국	N/A	N/A	N/A	1.7	1.5	1.7	1.4	1.4	1.3	1.6

*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단감 수출은 9월부터 시작되어 익년 2월까지 진행되며, 단감의 주 출하기인 10월과 11월 최대 물량이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10월과 11월의 수출물량은 각각 1,458톤과 3,167톤으로, 두 달간 전체 수출의 51.8%에 달하는 물량이 수출됨
-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은 10월부터 시작되어 익년 1월까지 진행되며, 11월에 연간 최대 물량인 1,527톤이 집중적으로 수출됨
- 이 외 국가로도 10월부터 수출이 시작되어 11월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경우 익년 1월까지, 필리핀과 홍콩으로는 익년 2월까지 소량의 단감 수출이 이어짐

〈표 1-4-3〉 2018년 한국 단감 월별 수출추이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484.9	9.6	-	-	-	-	-	-	60(kg)	1,457.8	3,166.6	616.7
1 말레이시아	174.9	-	-	-	-	-	-	-	-	688.7	1,527.2	190.5
2 싱가포르	75.7	-	-	-	-	-	-	-	-	192.8	525.5	39.2
3 필리핀	96.7	8.2	-	-	-	-	-	-	-	76.8	328.6	195.4
4 홍콩	3.8	1.4	-	-	-	-	-	-	-	259.4	323.2	99.6
5 캐나다	56.8	-	-	-	-	-	-	-	-	106.3	271.8	19.6
6 태국	-	-	-	-	-	-	-	-	-	38.2	130.5	58.8

*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로 수출되는 단감 품종은 부유로, 최근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해 로망 등 타 품목이 육성되고 있음

- 국내 생산량의 약 80%가량을 차지하는 부유가 주로 수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생산 및 수출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고품질·고당도 중생종 품종인 로망을 개발하여 수출용 품종으로 선발함
- 신품종인 로망은 저장성이 좋아 수출국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유를 대체할 수 있는 新수출품종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對홍콩 수출추이

□ 2018년 한국산 단감의 홍콩 수출물량은 687톤으로 전년대비 18.0% 감소함

- 對홍콩 수출물량은 2015년 1,189톤으로 최대치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표 I -4-4〉 2009~2018년 한국 단감 홍콩 수출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N/A	N/A	N/A	910	606	1,051	1,189	857	838	687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한국산 단감의 홍콩 수출단가는 1.5달러(한화 약 1,785원)/kg로 평균 수출단가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보임

- 이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수준으로,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 수출단가가 높게 조정된 것으로 분석됨

〈표 I -4-5〉 2009~2018년 한국 단감 홍콩 수출단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N/A	N/A	N/A	1.5	1.4	1.5	1.3	1.3	1.1	1.3
홍콩	N/A	N/A	N/A	1.5	1.5	1.6	1.4	1.3	1.2	1.5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2018년 기준 한국산 단감의 對홍콩 수출은 10월부터 시작되어 익년 2월까지 진행됨
 - 10월과 11월 집중적으로 수출이 진행되며, 이후 수출물량은 감소하기 시작해 2월까지 소량의 단감이 홍콩으로 수출됨

〈표 I -4-6〉 2018년 한국 단감 對홍콩 월별 수출추이

(단위: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8	1.4	-	-	-	-	-	-	-	259.4	323.2	99.6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홍콩행정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산 단감은 홍콩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표 I -4-7〉 2018년 홍콩 단감 관세율표

HS Code	품명	세율
		기본
0810.70-1000	단감(Sweet persimmons)	0%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II. 홍콩 시장현황

1. 생산현황

□ 홍콩에서는 단감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국 내 소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함

- 지리적으로 홍콩은 가파른 언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체 국토 면적 1,106km² 중 오직 7km²에서만 경작이 가능함⁷⁾
- 홍콩의 국토 면적이 대부분 도시화됨에 따라 농업이 전체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 이하로 나타남⁸⁾
- 이에 농지에서는 주로 가축을 키우거나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과일은 일부 저지대에서 리치, 롱간, 구아바, 파파야, 바나나 등 일부 열대과일만을 재배함

2. 유통현황

1) 유통구조

□ 홍콩 내 신선농산물은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 슈퍼마켓, 중간거래상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이 전량 수입됨에 따라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 슈퍼마켓, 중간거래상으로 물량이 유통되며, 다시 슈퍼마켓, 도매상으로, 도매장에서 전통 시장 및 소매점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함
- 홍콩은 수입과일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업자와 도매상들은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이며 과일 유통·소매상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이윤을 남기고 있음
- 홍콩에서는 재고량, 소비적기, 숙성도, 주요 재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요 등에 따라 과일의 가격이 형성되는 특징을 보임

□ 홍콩의 한국산 단감 유통은 5~6개의 지정 수입업체가 도매상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한국산 단감의 80% 이상을 수입함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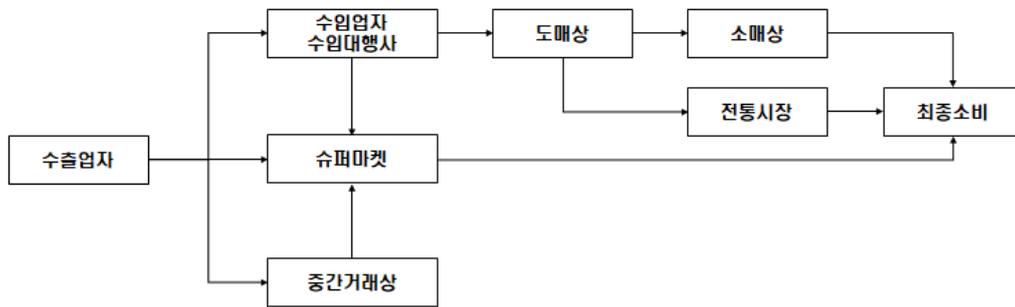
- 지정 수입업체에는 Good View, Top Weal, Shiu Pong, CJ China 등이 있으며 수입업체(도매상)는 단감 판매 시 박스 당 5~10%의 수수료를 취함

7) 「Hong Kong: The Facts - Agriculture and Fisheries」 - gov HK, 2019-04

8) 「Planning for Agricultural Uses in Hongkong」 - Planning Department HKSARG, 2016-10

9) Kati, 2017 단감수출동향

<그림 II -2-1> 홍콩 신선농산물 유통구조



* 출처 : 「Hong Kong Food Retail Industry」 - USDA, 2018-06-22

2) 제품분석

□ 홍콩에서 식품소매채널에서 판매되는 단감은 일본산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 매장에서 한국산, 중국산, 스페인산 상품도 확인됨

- 홍콩 내 판매되는 단감 품종은 주로 ‘부유’이며, 고급식료품점에서 평시(平柿)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단감의 경우, 원산지 이 외에 별도의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음
- 원산지별 단감의 소비자 가격은 일본산>스페인산>한국산>중국산 순임
 - 일본산 단감의 평균 소비자가격¹⁰⁾은 37.8HKD(한화 약 5,687원)로 집계되며, 한국산에 비해 약 6배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
 - 홍콩 내 식품소매채널 중, 단감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고급식료품점으로 1개당 약 33.0HKD(한화 약 4,965원)에 판매되고 있음
 - 일본산 단감의 경우 주로 고급식료품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Great Food Hall 내 일본산 단감의 개당 가격은 59.0HKD(한화 약 8,777원) 수준임
- 단감의 포장은 판매점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며, 고급 식료품점에서는 난좌망, 비닐랩,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판매되고 있음
 - 주로 2개의 묶음으로 포장되었으며, Yata에서는 1개의 날개 상품을 포장·판매하고 있음
 -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청과물 전문판매점에서는 별도의 포장 없이 날개로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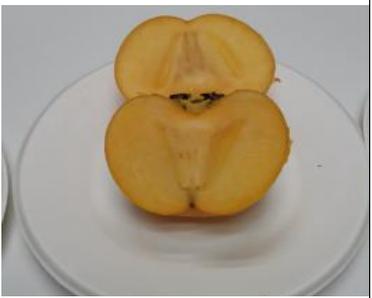
10) 단감의 평균 가격은 과일 1개 기준임

- 홍콩 내 판매되는 단감은 별도의 마케팅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일부 매장에서는 묶음판매를 통한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음

사진				
품종	부유(富有柿)	부유(富有柿)	부유(富有柿)	
원산지	일본산	일본산	한국산	
판매처	Great Food Hall(고급식료품점)	Taste(슈퍼마켓)	Taste(슈퍼마켓)	
가격	118HKD/2개	52.00HKD/1개	13.5HKD/3개	
사진				
품종	평감(平柿)	평감(平柿)	부유(富有柿)	
원산지	일본산	일본산	일본산	
판매처	Yata(고급식료품점)	Yata(고급식료품점)	Yata(고급식료품점)	
가격	30HKD/2개	25HKD/1개	39.8HKD/2개	
사진				
품종	부유(富有柿)	부유(富有柿)	N/A	부유(富有柿)
원산지	중국산	한국산	스페인산	중국산
판매처	ParknShop(슈퍼마켓)	Wellcome(슈퍼마켓)	야우마테이(재래시장)	청과물 전문판매점
가격	12.9HKD/3개	14.9HKD/3개	50HKD/4개	20.0HKD/6개

□ 2019년 11월 홍콩에서 유통되는 단감은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으로 3개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능검사를 진행함

- 홍콩에서 판매되는 한국산과 중국산 단감은 과실이 다소 딱딱하였으며, 일본산은 비교적 무르고 씨가 포함되어 있음
 - 과실의 색깔은 일본산이 가장 짙은 주황색을 띠었으며, 중국산이 가장 옅은 색을 띠
- 단감의 당도는 일본산과 중국산이 14.5 °Bx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산이 12 °Bx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과중은 중국산이 353g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일본산이 275g, 한국산이 199g로 나타남

사진			
			
구분	부유(富有柿)	부유(富有柿)	평감(富有柿)
원산지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
구매처	Taste	야우마테이	Yata
당도	12 °Bx	14.5 °Bx	14.5 °Bx
무게	199g	353g	275g

3. 소비현황

- 2010년 홍콩 식품위생국의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의 식품소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일일 감 소비량은 0.82g으로 나타남¹¹⁾
 - 이는 1인당 연평균 299.3g의 단감을 소비하는 것으로, 오렌지와 사과 소비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홍콩 소비자의 1인당 일일 오렌지 소비량은 0.55g으로 연평균 약 20kg 규모의 오렌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인당 사과 소비량은 일일 21.5g으로 연평균 약 8kg의 사과를 소비함
 - 홍콩 소비자들 사이에서 감은 중추절을 기념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지니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소비되는 과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홍콩에서는 중추절(음력 8월 15일)을 전후하여 감을 연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중추절에는 시기별로 섭취하는 음식이 정해져 있으며 단감은 아침 다과의 개념으로 소비됨

- 한국산 단감은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됨¹²⁾
 - 한국산 단감은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는 일본산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음
 - 일본산 단감에 비해 과형이 균일하지 않아 상품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한국산은 과피가 두껍고 과육이 적어 일본산의 품질이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됨¹³⁾

- 홍콩 식품규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홍콩에서 감은 주로 신선상태로 소비됨
 - 단감 가공품으로는 감와인, 감식초, 감가루, 껍감, 감차, 냉동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홍콩 식품규격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감 섭취 시 기침완화 및 부기감소 등 건강적 이점을 소개하면서, 감과 함께 섭취하지 말아야 하는 식품이나 한꺼번에 많은 감을 섭취할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1) 단감 특정 소비량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감 소비량으로 갈음함

12) 현지 수입업체 Good view fruits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5)

13) 현지 수입업체 Chan Man Chau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5)

4. 수입현황

1) 홍콩 감 수입현황

□ 2018년 홍콩의 감 수입량은 2,491톤으로, 전년대비 41.7% 감소함

- 동년 스페인으로부터의 감 수입량이 1,150톤으로 전체 46.2%를 차지함
 - 뒤이어 중국산 597톤, 한국산 297톤, 일본산 270톤 순으로 나타나며, 해당 국가로부터의 비중이 전체 46.7%를 차지함
 - 이 외에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로부터 감을 수입하나 물량과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 주요 수입국 중 한국산 단감 수입량은 전년대비 61.7%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산 단감 수입량은 37.2%로 가장 크게 증가함
- 최근 3년 동안 홍콩의 감 수입량은 연평균 3.1% 감소함
 - 일본(26.5%)과 네덜란드(78.0%)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3년간 연평균 감 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4-1〉 2009~2018년 홍콩 단감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	-	-	1,142	936	1,674	2,240	2,654	4,290	2,491
1	스페인	-	-	-	-	21	215	846	1,158	2,461	1,150
2	중국	-	-	-	-	15	-	-	-	435	597
3	한국	-	-	-	904	564	957	758	893	828	297
4	일본	-	-	-	101	94	132	172	170	224	270
5	뉴질랜드	-	-	-	4	97	133	81	161	93	84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홍콩의 2018년 평균 단감 수입단가는 kg당 2.51달러(한화 약 3,058원)로 집계됨

- 일본산 감의 수입단가가 kg당 6.9달러(한화 약 8,406원)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일본산 감의 수입단가는 최근 6년간 kg당 4달러(한화 약 4,873원)에서 6달러(한화 약 7,310원) 수준으로 증가함
- 호주산, 뉴질랜드산, 네덜란드산 단감의 수입단가가 각각 5.57달러(한화 약 6,786원)/kg, 5.18달러(한화 약 6,310원)/kg, 4.52달러(한화 약 5,506원)/kg로 나타남
- 중국산 감의 수입단가가 1.17달러(한화 약 1,425원)/kg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확인됨

- 동년 한국산 감의 수입단가는 kg당 1.34달러(한화 약 1,633원)로 중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한국산 감의 수입단가는 큰 변화 없이 kg당 1달러(한화 약 1,218원)대를 유지함

〈표 II-4-2〉 2009~2018년 홍콩 단감 수입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	-	-	1.9	2.3	2.2	2.2	2.4	2.3	2.5
스페인	-	-	-	-	2.5	2.7	2.4	2.5	2.2	2.2
중국	-	-	-	-	1.7	-	-	-	1.5	1.2
한국	-	-	-	1.5	1.4	1.3	1.1	1.2	1.1	1.3
일본	-	-	-	4.3	4.7	4.3	5.1	6.0	7.0	6.9
뉴질랜드	-	-	-	3.3	5.2	5.1	5.0	4.8	5.1	5.2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홍콩의 단감 수입은 4월을 제외하고 연중 수입되며, 주로 10월부터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12월에 정점에 달하는 양상을 보임

- 동년 11월 홍콩의 감 수입량은 2,109톤으로 연중 가장 많은 물량이 수입됨
 - 그 중 중국산 감이 43.05%를 차지하며, 뒤이어 스페인(36.75%), 한국(15.32%), 일본(4.84%) 순임
 - 10월과 12월의 감 수입량이 각각 1,226톤, 1,264톤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뒤를 이음
 - 세 달 동안 홍콩으로 수입된 감은 2018년 전체 수입량 중 91%를 차지함
- 수입량이 가장 적은 달은 3월로 호주산 감 2톤이 홍콩으로 수입됨
 - 주로 수입하는 국가들의 감이 출하되지 않는 시기에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호주산 감을 소량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국산 단감 수입은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익년 2월까지 이어짐
 - 11월 최대 물량이 수입되며, 1월과 2월에는 5톤 미만의 물량이 수입됨

〈표 II-4-3〉 2018년 홍콩 단감 월별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77	42	0.4	-	44	45	23	8	158	1,224	2,108	1,265
1 스페인	48	-	-	-	-	-	-	-	19	301	775	576
2 중국	14	29	0.4	-	-	-	-	8	122	580	908	551
3 한국	4	2	-	-	-	-	-	-	-	259	323	100
4 일본	11	11	-	-	-	-	-	0.2	17	84	102	38
5 뉴질랜드	-	-	-	-	44	45	23	-	-	-	-	-

*주: HS Code 0810.70(단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2) 수입제도 및 규격

가. 통관 및 검역

□ 한국산 주요 신선 및 건조 농산물 중 홍콩으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현재까지 없음¹⁴⁾

- 신선 과채류 등 식용 농산물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없이 對홍콩 수출이 가능함
- 재식용식물¹⁵⁾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인 홍콩 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 CFS)에서 수출검역조건에 대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원문링크 : 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fc.html

□ 홍콩의 수입통관은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및 통관완료의 절차로 이루어짐

- 수입신고 전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홍콩세관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허가증을 구비해야함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에는 마약류, 폭발물, 쌀, 냉동육, 가금류 등이 있으며, 단감의 경우 수입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음
- 입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빙서류를 수입 신고서와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 식품류의 경우 건당 0.2HKD(한화 약 30원)를 지불해야 함
- 전자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위험성이 낮은 물품은 별도의 검역 없이 빠르게 통관시키며 일부에 대해서만 현장 검사를 실시함
- 전자적 사전검사시스템에는 EMAN(해상운송), ACCS(항공운송), ROCARS(육상운송)이 있으며, 화물의 정보를 도착 전 해당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함
- 술, 담배,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이외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단감 역시 관세 납부절차 없이 통관이 완료됨

14)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2019-06-21 기준)

15) 종자용, 묘목, 구근류 등

나. 라벨링

□ 홍콩으로 수입되는 식품 포장 라벨링에는 제품명, 원재료, 포장업체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 홍콩으로 수입되는 식품라벨링 규정은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衛生署) 산하, 식물안전중심(食物安全中心)에서 관할함
- 일반적으로 홍콩 내 식품 라벨링은 영어 또는 중국어(번체) 둘 중 하나로 기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두 언어를 병기하여 라벨링 표시하였을 경우, 식품의 이름과 성분 리스트 정보는 반드시 두 언어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홍콩 행정부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만 HKD(한화 약 751만 5,5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원문링크 : www.cfs.gov.hk/english/faq/faq_03.html

- 기재되어야 하는 표시사항 및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식품명
 - 원재료 목록
 - 유통기한
 - 제품 보관상의 특수한 조건 및 지시사항
 - 제조업자 혹은 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 개수, 중량 혹은 식품의 부피

다. 인증

□ 홍콩 유기농 인증

- 홍콩 유기농 인증센터(The Hong Kong Organic Resource Center, HKORC)의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기농 로고를 부착할 수 있음
 - 인증마크는 중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으며, △유기농 성분이 95% 이상 함유된 유기농 제품 인증마크, △일반농장에서 유기농 농장으로 변경 후 생산된 제품 인증마크, △유기농 성분이 70% 이상 95% 미만인 제품 인증마크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해당 인증은 2012년 국제유기농운동연합(IFOAM)에 의해 인정받았으며, 2015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은 인증임

〈그림 II-4-1〉 홍콩 유기농 인증 로고

 <p>有機產品 Organic</p> <p>IFOAM ACCREDITED</p>	 <p>有機產品 (轉型) Organic (In Conversion)</p> <p>IFOAM ACCREDITED</p>	 <p>含有機成分 產品 Made with Organic</p> <p>IFOAM ACCREDITED</p>
유기농 성분이 95% 이상 함유된 유기농제품	일반농장에서 유기농 농장으로 변경 후 생산된 제품	유기농 성분이 70% 이상, 95% 미만인 제품

* 출처 : HKORC(Hong Kong Organic Resource Center)(<https://www.hkorc.org/>)

〈표 II-4-4〉 홍콩 유기농 인증 획득 절차

비용	초기 신청비용 800HKD(한화 약 11만 9,528원) 검사 수수료 1일당 1,200HKD(한화 약 17만 9,292원) 실험실 사용료 5,000HKD(한화 약 74만 7,050원)	
취득 절차	1. 인증신청서 제출	“작물의 윤리적인 생산, 양식, 가공기준”, “인증 관리 매뉴얼”, 인증 신청서, 관련 양식 및 적용 지침 등을 작성하여 신청함 · 데이터 세트 비용은 250HKD이며, 이 금액은 신청서가 수리되고 인증 신청비로 전환된 후 공제됨
	2. 인증신청서 수리	작물 생산, 양식 및 가공에 대한 초기 평가 비용은 각각 800HKD, 800HKD, 1,500HKD이며 이는 신청서가 수락되고 인증 신청 수수료로 전환된 후 차감됨
	3. 인증신청서 서류심사	인증신청서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정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4. 현지실사	현지 실사 과정에서 하루에 1,200HKD의 검사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됨
	5. 판정	-
	6. 인증 발급	-

* 출처: 홍콩유기농인증센터(www.hkorc-cert.org/tc/service.php), AFCD(www.afcd.gov.hk)

라. 안전성

-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불순물(중금속 오염) 2018 개정 규정’에 따라 과일류에는 납이 최대 0.1mg/kg까지 허용됨

III. 시장현황 비교 · 분석

1. 시장현황 비교

- 한국의 단감 생산량은 약 10만 톤으로, 이 중 12.1%에 해당하는 687톤이 홍콩으로 수출됨
 - 2018년 對홍콩 수출단가는 1,785원/kg으로 국내 도매가격 3,155원/kg보다 낮아 농가의 수출요인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됨
- 홍콩 단감시장은 전량 수입산으로 충당되며 한국산 단감은 2018년 홍콩의 단감 수입량의 11.9%를 차지함
 - 홍콩에서는 단감이 생산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홍콩 내 수요는 전량 수입에 의존함
 - 2018년 홍콩의 단감 수입물량은 전체 2,491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한국산 단감은 297톤(11.9%) 수입됨
 - 한국산 단감의 수입단가는 평균 수입단가 3,058원/kg에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됨

구분		한국	홍콩
생산	생산량(2018)	104,362톤	생산되지 않음
	출하시기	9~11월	생산되지 않음
	생산품종	부유, 차랑, 서촌조생 등	생산되지 않음
유통	도매물량(2018)	N/A	N/A
	도매가격(2018)	3,155원/kg	N/A
수출입	수출입물량(2018)	[전체] 5,660톤 / [홍콩] 687톤(12.1%)	[전체] 2,491톤 / [한국산] 297톤(11.9%)
	수출입가격(2018)	[평균] 1,547원/kg / [홍콩] 1,785원/kg	[평균] 3,058원/kg / [한국산] 1,633원/kg ¹⁾
	관세율	對베트남 신선 단감 수출 시 무관세 수출가능	

* 주1: 한국의 對홍콩 수출단가 집계치와 홍콩의 한국산 단감 수입단가 집계치에 차이가 있으나, 각 국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자료이므로 별도의 수정없이 기재함(ITC Trademap 자료 활용)

* 주2: 환율기준 : 1USD=1,190.0원, 1HKD=150.47원

* 출처: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ITC Trademap(www.trademap.org),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2. 수출국 시장분석

□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단감은 주로 10~12월 중에 집중적으로 수입됨

-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한국산, 스페인산, 중국산 단감은 단감 출하시기에 따라 10~12월에 집중 유통되며 일본산은 11월에 집중됨
-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산 단감은 경쟁국산 단감이 유통되지 않는 5~7월동안 유통되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물량	유통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국산	생산되지 않음												
수입산	스페인산	1,150톤(46.2%)	■	■						■	■	■	■
	중국산	597톤(24.0%)	■	■	■				■	■	■	■	■
	한국산	297톤(11.9%)	■	■							■	■	■
	일본산	270톤(10.8%)	■	■					■	■	■	■	■
	뉴질랜드산	84톤(3.4%)					■	■	■				

□ 홍콩에서 단감의 인지도 및 소비량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홍콩에서 단감은 인지도가 낮아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과일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페인산과 중국산의 비중이 높아 한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높지 않음

□ 또한 한국산 단감은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는 일본산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단감은 일본산에 비해 균일하지 않은 과형과 두꺼운 과피로 상품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소비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에 전량 의존하며 스페인산 비중이 가장 큼 · 감 소비량 자체가 적으며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보다는 명절(중추절)을 기념하는 용도로 소비됨
품질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은 일본산 단감에 비해 과형이 균일하지 않아 외관상 경쟁력이 미흡하며 상품성이 낮음 · 한국산 단감의 과피가 두껍고 과육이 적음
한국산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과 함께 프리미엄 상품으로 취급되나 일본산에 비해 상품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원산지별 평가

홍콩산	· 생산되지 않음	중국산	· 가격경쟁력 바탕으로 저가시장 수요 충족
스페인산	· 적절한 가격과 압도적 물량으로 경쟁력 확보	일본산	· 프리미엄으로 인식
뉴질랜드산	· 프리미엄으로 인식	한국산	· 부유 위주로 수출됨 · 껍질이 두껍고 과육이 적다고 인식함 · 외관상 경쟁력이 미흡함 ·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 낮음

□ 원산지별 가격비교

구분	자국산	스페인산	중국산	일본산	뉴질랜드산	한국산
수입단가	-	2,618원/kg	1,425원/kg	8,406원/kg	6,310원/kg	1,633원/kg
도매가	-	N/A	N/A	N/A	N/A	N/A
소매가	-	1,881원/개	504원/개	6,560원/개	N/A	715원/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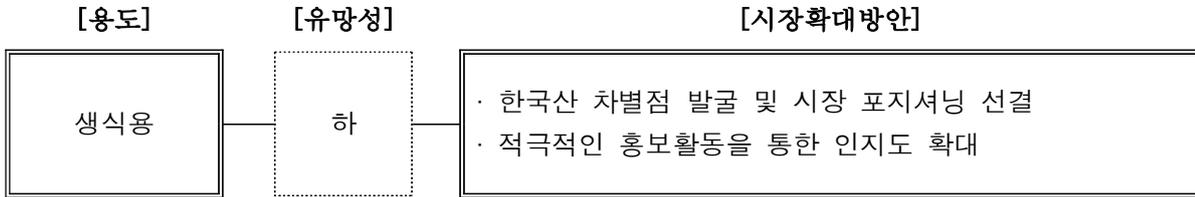
주1) 소매가는 현지조사(2019.11) 시점 소매유통채널의 부유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함

주2) 환율기준 : 1USD=1,190.0원, 1HKD=150.47원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ITC Trademap(www.trademap.org)

IV. 시장확대방안

1. 품목유망성



□ 홍콩에서 단감은 뉴질랜드 및 일본산이 고급으로 소비되고 있음

- 일본산과 뉴질랜드산 단감(부유)이 고품질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산의 수입단가는 중국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저가시장에 위치하고 있음
 - 일본산 단감의 수입단가가 kg당 6.9달러(한화 약 8,406원)로 최고가에 유통되며, 그 뒤를 뉴질랜드산이 kg당 5.2달러(한화 약 6,310원)로 잇고 있음
 - 중저가 시장에서는 스페인산 단감의 비중이 높는데, 수입단가는 kg당 2.2달러(한화 약 2,618원)로 나타남
 - 반면 한국산 단감의 수입단가는 중국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1.3달러(한화 약 1,633원)/kg에 수입됨

□ 홍콩에서 단감은 인지도가 낮아 소비량이 높지 않은 편으로¹⁶⁾, 한국산 단감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더욱 떨어짐

- 한국산 단감은 경쟁국산 대비 과피가 두껍고 과육이 적으며, 외관상의 형태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¹⁷⁾
 - 일본산 단감에 비해 과실의 모양이 수려하지 않으며 일정치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¹⁸⁾

16) 홍콩 수입업체 Topweal 담당자 현지 인터뷰 결과(2019.11.06.)

17) 홍콩 현지조사 결과(2019.11)

18) 홍콩 수입업체 Good View Fruits 담당자 현지 인터뷰 결과(2019.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삭한 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인지도 · 경쟁국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미엄/중가/저가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감 자체 인지도가 부족하며 소비량이 낮음 · 뉴질랜드 제외한 주요 경쟁국과 수입시기가 비슷하여 경쟁강도가 강함

S	W
O	T

2. 시장확대방안

□ 뉴질랜드를 제외한 주요 경쟁국과의 수입시기가 비슷해 한국산 단감의 명확한 포지셔닝과 함께 차별성이 강조되어야 함

- 홍콩에서 단감은 뉴질랜드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8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12월, 익년 2~3월까지 진행됨
 - 중국산 단감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저가시장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산과 뉴질랜드산은 고품질의 프리미엄 시장 내 비중을 차지함
 - 스페인은 적절한 가격과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 내 소비자의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가시장(middle lever)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
 - 한국산의 경우 주요 경쟁국 대비 차별화된 강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임

〈표Ⅳ-2-1〉 홍콩 단감 원산지별 주요 유통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산												
스페인산												
중국산												
일본산												
뉴질랜드산												

□ 현지 시장에서 고급으로 인식되는 일본산 단감의 품질 수준으로 생산 및 선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일본산 단감은 현재 홍콩에서 고급 상품으로 인식되며 유통되나, 한국산의 품질은 일본산에 미치지 못하며 큰 경쟁력이 보여지지 않음

- 현지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단감(평균)의 당도는 약 14.5 ° Bx, 과중 약 275g¹⁹⁾으로 확인됨
 - 과피는 짙은 주황색으로 색택이 균일하여 상품가치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산과 중국산 단감(부유) 대비 과육이 비교적 부드러운 것이 특징임
- 반면 한국산 부유의 당도는 12 ° Bx에 불과했으며, 과중 역시 199g으로 조사품목 중 가장 작은 사이즈로 확인됨
- 한국산 단감(부유)의 탐 프루츠 품질기준은 당도 14.5 ° Bx 이상, 과중 280g±30g 수준으로, 현재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단감만큼 우수한 상품 생산이 가능함
- 이에 수출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균일한 조건의 상품을 선별 및 수출하여 한국산 단감의 품질적 우수성을 나타내야 함

〈표Ⅳ-2-2〉 일본산 및 한국산 단감 품질기준 비교

원산지	품종	과중	당도
일본산	부유	300g 이상	15~16 ° Bx 이상
	평균	250~300g	14.5 ° Bx 이상
한국산(탐프루츠)	부유	280±30g	14.5 ° Bx 이상

□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수반되어야 함

- 현지 수입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단감은 다른 과일류와 다르게 시장 내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단감의 효능, 섭취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또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켓 테스트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한국산 단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해야 함

시장 확대 방안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 및 뉴질랜드산 수준으로 품질향상 · 수출용 상품 생산 및 선별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과중 300g, 당도 15° Bx 이상 상품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외 주요 경쟁국과 수입시기가 유사해 한국산 단감의 명확한 포지셔닝과 함께 차별성이 강조되어야 함 · 저장성 향상으로 유통기한 확대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질한 상품성과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선행되어야 함 · 운송 시 상품성 유지를 위한 포장의 기능적 측면이 개선되어야 함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를 확대해야 함

19) 홍콩 현지조사 결과(2019.11)